

한전, 커뮤니티 에너지자립 향상 기술개발 나선다

GS건설·켄텍과 협약...에너지관리 시스템 등 기술 이전 켄텍 캠퍼스 시범 운영...에너지자립형 캠퍼스 구축 나서

한국전력이 전 지구적인 친환경 기조에 맞춰 주택단지 및 건물의 에너지 자립률 제고에 나선다. 한전은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력에 대형 건설사가 가진 공동주택 데이터를 더해 이른바 '커뮤니티 EMS(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한전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경감에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은 지난 17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한전-GS건설(주)-한국에너지공단(켄텍, KENTECH)' 간 커뮤니티 에너지관리 시스템 기술개발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경숙 한전 전력기술본부장장과 김영신 GS건설 미래기술연구원(RIF.Tech) 원장, 박진호 KENTECH 부총장 간 서명으로 체결됐다. 커뮤니티 EMS는 에너지 소비패턴이 서로 다른

여러 건물 집합의 에너지 수요를 조절하고 함께 공유해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지역 단위 에너지관리시스템이다. 최근 재생에너지 비율을 지속 확대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맞춰 분산형 전원의 안정적 보급을 위한 필수 기술이다.

한전은 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최적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복안이다.

한전은 먼저 한국에너지공대에 한전형 에너지관리 시스템인 K-BEMS 3.0과 마이크로그리드 플랫폼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다.

마이크로그리드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원과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융·복합된 에너지 자급 자족형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이다.

한전은 스마트빌딩에 최적화된 통합 운영 솔루션인 K-BEMS 3.0을 한국에너지공대에 기술을 이전하면서 교내 모든 건물의 전기, 가스, 열 등 다양



지난 17일 '커뮤니티 EMS(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 개발 협력 MOU에 참여한 한국전력과 GS건설(주),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 제공>

한 에너지 사용정보를 실시간 수집, 분석 및 제어해 에너지자립률을 향상하는 등 에너지자립형 캠퍼스 구축을 돕기로 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캠퍼스를 커뮤니티 EMS 시범 구역으로 선보여 운영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기술 발전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기술개발에 건설회사의 다양한 주택건설 경험

과 데이터를 활용하기로 했다. 한전은 GS건설과 GS건설이 오랜 기간 쌓아온 공동주택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 섹터커플링(전기, 열, 가스 등 에너지자원 간 전환하는 기술) 등을 더한 신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커뮤니티 에너지단지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경숙 한전 전력기술본부장은 "한전은 한국

에너지공대에서 나아가 나주 에너지밸리에 미래 신사업을 선도하는 개방형 실증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며 "이번 기술개발 협력과 같이 다양한 기업과 연구진이 참여해 신기술을 실증하고,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 글로벌 에너지 아젠다를 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식품 청년해외개척단 '아프로', K-푸드 세계화 앞으로

aT, 17기 발대식 개최 영국·호주 등 6개국 32명 파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지난 20일 서울시 양재동 aT센터에서 K-푸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농식품 청년해외개척단(아프로)' 17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농식품 청년해외개척단 '아프로' (Agrifood Frontier Leader Organization)는 2017년부터 정부와 공사가 한국농수산물의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출업체의 현지 진출을 돕기 위해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청년을 해외로 파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17기 단원 32명은 수출시장 다변화 최우선 전략국 중 6개 국가인 영국, 호주, 멕시코, 카자흐스탄, 독일, 캐나다에 파견된다. 현지에서 'K-푸드 청년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며 올해는 총 100명의 단원을 3개 기수로 나누어 8개국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지난해 아프로 단원들은 몽골의 주요 유통매장에 우유를 신규 수출하고, 캐나다 바이어와 단급 수출계약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는 "해외 2030 MZ세대를 타겟으로 한 K-푸드 마케팅 행사 추진



저수지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직원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농어촌공사, 농업 시설 안전사고 예방 강화

1만4476곳 시설 정비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안전사고 사전 방지를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시설 정비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관리 중인 농업용 저수지 3428곳을 포함한 농업생산기반시설 1만4476곳에 대한 분기별 안전 점검으로 위험 요소, 보완사항 등을 발굴해 개선할 예정이다.

또 안전펜스와 인명구조함, CCTV 설치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점의 안전 대책시설 정비 및 설

치 확대에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공사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안전대책시설 예산을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증액했으며, '23년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을 통한 CCTV 추가 설치(492대, 254억 원)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 사고 위험 요소의 사전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이병호 사장은 "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 선도기관으로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삶터, 안전한 농어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세계 물의 날' 생활 속 물 절약 실천 다짐

특강·물 절약 실천 전시회 등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본부장 백인노)는 제31회 세계 물의 날을 맞아 21일 화순군 하니읍 문화스포츠센터 만연홀에서 사단법인 소비자연구교육중앙회 전라남도지부(회장 이송자)와 함께 '생활 속 물 절약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백인노 본부장을 비롯, 구북구 화순군수와 하성동 화순군의회의장,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날 행사는 극심한 가뭄으로 수자원 고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물의 소중함을 주제로 한 특강과 퍼포먼스, 물 절약 실천 10대 수칙 결의

문 채택, 물 절약 실천 정보전시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백인노 본부장은 "광주·전남지역의 가뭄 극복을 위해 인식 변화와 참여가 중요한 시점이며 지자체, 물 관련 관계기관, 시·도민 모두 일상생활 속에서 물 절약을 함께 실천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